< 좌측통행의 유래 >

현재 통계적으로 전 세계 65%의 나라는 우측통행을 하고, 나머지는 좌측통행을 한다.

영국과 홍콩.호주.일본 등지에 가면 자동차들이 우리나라와 달리 좌측 통행을 한다. 운전석도 오른쪽에 있다.

이들 나라에서 차들이 좌측 통행하는 이유는 뭘까. -> 역사가들은 차가 발명되기 한참 전인 중세 시절 영국의 기사(騎士)나 일본 사무라이들의 통행 관습이 영향을 미쳤을 것

1. 영국 : 영국 중세 기사들은 오른손에 창을 들고 말을 몰아 좌측으로 달리면서 우측에서 오는 적을 공격하는 기마법(騎馬法)을 발전시켰다. 이 관습에 따라 마차들도 자연히 좌측 통행을 했고, 자동차도 이를 따르게 됐다는 것이다.

2. 일본 : 좌측 옆구리에 칼을 차고 다녔던 사무라이들은 우측으로 걸을 경우 마주오는 사무라이의 칼과 자신의 칼이 맞부닥치게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.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 좌측 통행을 했다는 것이다.

3.프랑스 : 프랑스의 정복자 나폴레옹은 영국 기마법을 역으로 이용, 우측에서 좌측으로 공격하며 연승했다.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자 영국과 그 일부 식민지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프랑스의 기마법을 따르게 됐고 이것이 마차와 자동차의 우측 통행법으로 이어짐.

21세기에 와서 좌측통행이나 우측통행이 가지는 의미는 기존과 다를 것 같다. 자율주행자동차가 생기면 운전하는 사람도 없고, 운전대도 없기 때문에 핸들의 중요성은 없어질 것이며, 그저 길을 건널 때 차량이 오는 방향을 유의하는 방식 정도로 생각될 것이다.

출처: 중앙일보 [자동차 이야기] 좌측통행의 유래  
출처 : <http://www.kama.or.kr/jsp/webzine/201803/pages/story_02.jsp>